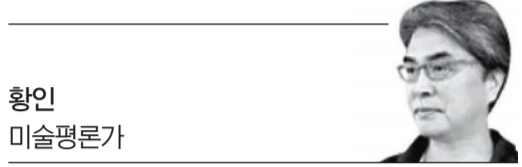


STORY 예술가의 한끼

# ‘화단의 테러리스트’ 황창배 요리도 ‘카레 된장찌개’ 파격



황인 미술평론가

동양화 틀 깬 자유분방 화풍  
실험적인 요리, 그림 빼닮아

운동 만능에 연극 출연·연출  
소고기 소금구이·회도 즐겨

전각 스승 이기우 딸과 결혼  
연애 댄 멕시코 사라다에 와인

는 황창배, 박영옥 등이 출연했다.

황창배 주변에는 친구들이 들끓었다. 서울대 미대에서 가까운 동대문 창신동이 분가였다. 부친은 한의사였다. 친구들이 몰려가면 어머니께서 밥을 지어 주셨다. 연극반은 황창배 등의 맹활약으로 미대 학생들의 중심적인 동아리가 됐다.

프로필이 섬세했던 민정기, 근육질의 임옥상, 대부의 말론 브랜드의 대사를 입에 달고 다니던 황창배의 경북고 후배 황인기, 가수 현경과 영애의 박영애, 가수 김민기 등 재기발랄한 동지들과 후배들이 미대 연극반에서 활동했다.

3학년 겨울방학 때 황창배는 조소과의 최인수 등 동기 5인과 함께 용산역을 출발해 경주로 고적답사를 떠났다. 물결은 빛나는 청춘이나 행색은 무일푼이었다. 청년 화학도(化學徒)들에게 경주는 별천지였다. 그리스 미술의 본령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 먼 곳 석굴암까지 와 있었다. 벽한 감동에 흥분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겨울 불국사 앞의 텅 빈 여관을 찾아 비현실적인 싸구려 가격으로 숙박을 협상하는 일도, 버스비 대신 노래로 통 치자고 차장 아가씨를 설득하는 일도 인물이 환한 데다 불임성이 좋은 황창배의 몫이었다. ‘앞마을에 순이 뒷마을에 용팔이 열일곱 열아홉 처녀총각’으로 시작하는 서울대 미대 용팔이들의 합창이 시골 버스 안에서 울려 퍼지면 차장 아가씨는 앞마을 순이가 된 양 얼굴을 붉혔다. 결국 차비는 공짜.

ROTC 장교로 복무할 때도 군대에서 연극 연출을 했다. 상관이 연출에 간섭했는데 황창배가 말을 듣지 않았다. 과섬죄로 진급을 못 했다. 그 덕에 남들은 다 중위로 제대하는 ROTC 장교를 황창배는 소위로 제대했다.

소위로 제대했다.

군대를 제대하고 극단 가교에서 활동했다. 연극과 미술 사이에서 갈등하던 그는 미술로 마음을 굳히고 73년 대학원에 입학했다. 그해 12월 미대 정기공원의 ‘신의 기실’이란 작품에 연출을 맡았다. 장교용 트랜치코트를 입고 나타나 후배들을 지도했다. 그의 마지막 연극 활동이었다.

이 무렵 황창배는 서가에 철농 이기우로부터 전각을 공부했다. 철농의 집은 낙원상가 아파트였다. 철농에게는 이화여대 재학생인 딸 이재은(현 스페이스 창배 관장)이 있었다. 둘의 눈맞춤도 은근했지만 철농의 부인이 티가 나게 황창배를 췌겼다. 데이트 장소는 명동 오비스캐빈이었다. 흥민, 장현, 양희은 등이 무대에서 연주하는 노래를 들으며 ‘멕시코 시간 사라다’에 애플와인을 마시면 최고의 호사였다. 황창배는 길을 걸으며 ‘두 개의 작은 별’이란 노래를 미래의 부인에게 가르쳤다. 이 둘은 75년에 결혼했다.

황창배는 74년부터 82년까지 명지전문대에서 근무했다. 학교에서 짜장면을 배달시키면 군만두에 고랑주 한 병을 잊지 않았다. 연구실에는 늘 오이며 고추장을 갖다 놓았다. 542번 버스를 타고 신촌으로 나와 같은 학교 교수인 대학동기 최인수와 함께 저녁을 하곤 했다. 월급을 타면 우선 외상값을 갖고 부인과 함께 방산시장의 실비집에 가서 소고기 소금구이를 먹었다. 광장시장의 횡집도 즐겨 찾았다. 진로가 만든 화이트 와인 사토 몽블르의 광고에는

멜랑트가 아닌 화가 황창배가 모델로 등장했다. 실력과 소연임을 겸비한 황창배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경희대를 거쳐 이화여대 교수로 있다가 91년 학교를 그만두었다.

황창배는 요리만큼이나 주방기구에도 관심이 많았다. 백화점에 가면 꼭 주방기구 코너에 가서 서성거렸다. 그릇 사는 걸 좋아했다. 부인이 그럴듯한 프라이팬이나 냄비를 사면 탐을 내어서 작업실로 가져갔다. 볶음요리를 할 때는 소금을 골고루 치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많이, 어떤 곳은 아주 적게 친다. 그레아 하나의 요리에서 다양한 느낌의 맛을 즐길 수 있다는 게 황창배의 지론이었다. 심지어 된장찌개에 카레를 넣으면 어쩔까도 실험해 본다. 다 된 요리는 큰 그릇에다 갓익은 갈아 장식한 다음 먹을 직스럽게 플레이팅을 한다. 향아리를 명숙 깊이 묻고 동치미를 담그기도 했다. 요리의 방식과 배치 그리고 실험정신이 황창배의 그림을 똑 닮았다. 자신이 한 음식을 맛있게 하면 어린이처럼 좋아했다.

80년대가 되자 황창배 신드롬이 일어났다. 그는 화단의 스타이자 테러리스트였다. 오랫동안 지렁해 오던 동양화의 틀이 황창배에 의해 하나둘 깨져 갔다. 그때만 해도 서양화의 전용물로 여겨지던 아크릴물감을 황창배는 거리낌 없이 썼다. 동양화의 필수인 하도(下圖)를 무시하고 캔버스 위에 얹힌 재료들의 물성에 배인 그림의 진상(眞相)을 손과 붓의 자유자재한 운용에 의해 화면 위로 즉발적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1997년엔 분단 후 화가 첫 방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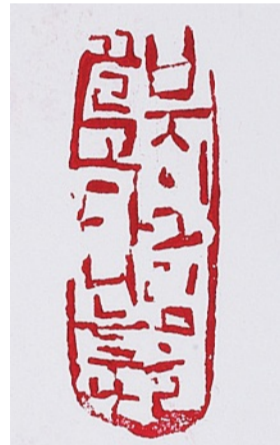
황창배는 기본기가 탄탄한 화가였다. 일필휘지로 대상의 본질을 잡아내는 그의 데생 실력은 미대 동기생들을 질망에 빠뜨리게 할 정도였다. 누구보다 격을 갖춘 그였기에 파격으로 나아가갈 수가 있었다. 마침 민화의 재발견 열풍과 맞물려 자유분방한 그의 그림은 후학들의 새로운 길잡이가 돼 주었다. 97년에는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북한문화유산 조사단’ 단원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보름간 평양 일대와 개성, 구월산, 일대를 답사했다. 황해도 정방산에 올라선 일망무제로 펼쳐진 재령평야를 그렸다. 남북분단 후 남한의 화가가 북한을 방문해 그림을 그린 건 황창배가 처음이었다. 현장에서 소품으로 제작한 것, 돌아와서 나중에 제작한 그림들을 모아서 이듬해 선화관에서 전시했다. 반향이 컸다. 많은 실험과 가능성을 남기고 2001년에 졸했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황인 미술평론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시기획과 공학도와 미술을 융합하는 학제 간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 현대화랑에서 일하면서 지금은 거의 작고한 대표적 화가들을 많이 만났다. 문학·무용·음악 등 다른 장르의 문화인들과도 교류를 확장해 나갔다. 골목기행과 흥대 앞 계림라 문화를 즐기며 가성비가 높은 중저가 음식을 좋아한다.



2



3



1 황창배의 '무제', 한지에 혼합재료, 144×100cm, 1990년. 2 화단의 테러리스트로 불린 황창배 3 황창배의 전각 '붓이 그림을 끌고 다니는구나' 4 연극 '헐거부족'에서 대왕 역을 맡은 황창배(가운데), 1968년5월. (사진 스페이스 창배)



4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